

# 광주 동구청~조선대 사거리 3년 만에 ‘뻥 뚫린다’

3월 왕복 5차선 개통…도심 병목 구간 교통 흐름 개선

보행로 확장·푸른길 공원 연계…접근성 등 향상 기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조선대 학교를 연결하는 ‘광주 동구청~조선대학교 사거리(서남로)’ 도로 확장 공사가 3월에 개통된다.

19일 광주종합건설본부와 광주동구 등에 따르면 도심지 도로망 기능 개선 사업 중 하나로 왕복 4차로인 광주 동구청~조선대 사거리 구간(375m)의 도로 폭을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공사(왕복5차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로 확장 공사는 동구청 앞부터 조선

대 정문 앞 사거리까지(375m) 현 4차로(폭 20m)를 가변형 5차로(30m)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동구청에서 조선대 방향(서 남로 2~34) 구간의 인도 폭이 4.5m로 늘어난다. 해당 구간에는 가로수를 심고 가로등, 도로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새로운 동구청 차량 진출입로를 조성하기 위한 막바지 공사도 한창이다.

해당 공사로 서석동 31~10 일원 80여m 구간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대된다.

이후 KT광주타워에서 동구청 방면은 직진·좌회전 1차선, 직진·우회전 1차선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토론회

### ‘완전한 자치경찰제’ 방향·대응 방안 모색

#### 조직·인력 이관 중심 제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회장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최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21년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계에서 사무만 분리·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친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향후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짚으면, 단순한 권한강화가 아닌 조직과 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재정 기반 없이 제도만 도입되면 ‘무너만 자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 재원 구조 도입과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구체적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 위원들은 향후 법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회장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견의안을 제작하고, 법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오는 3월 개통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조선대학교 사거리 도로 확장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왕복 4차로 구간(375m)의 도로 폭을 가변형 왕복 5차로로 확장한다.

틈을 기대했다.

시민 김모씨(36)는 “도로가 너무 좁고 차량이 너무 많아 이 곳을 피했다”며 “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올해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만큼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로·인도 환경 제공에 최

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동구는 청사 주차면을 154 면에서 98면(장애인 4면 포함)으로 줄였고 서석동 KT광주타워 앞 공영(노상) 주차장 일부 주차면(9면)을 폐지했다. 또 새로운 진출입로에 주차관계시스템(차량 차단기)을 설치했다.

동구는 새로운 차량 진·출입로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SNS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도로 확장공사가 끝나면 청사 차량 진출입로가 변경된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다”며 “넓어진 인도가 푸른길 공원과 연계돼 주민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gwangnam.co.kr



미세먼지로 덮인 광주 도심  
짙은 안개와 전국 대부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19일 오전 광주 도심이 미세먼지와 연무로 덮여 온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저수지 보험금 살인’ 재심, 의문점 해소될까

#### 내일 재심 변론 종결…피고인 사망·궐석 재판

#### 검찰 “고의 주행”…변호인 “졸음 운전 사고”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21년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인 장모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 재판 변론을 21일 종결한다.

과거 명금저수지로 불렸던 해당 지역에서 지난 2003년 7월 오후 8시께 장씨와 그의 아내가 탄 트럭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장씨는 털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검찰은 아내 사망으로 8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에 주목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사건 발생 2년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에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이 당시 사건의 현장 조사가 엉터리였

고, 검찰이 가혹 행위와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장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씨는 재심 재판을 위해 군산교도소에

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다.

장씨는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 2024년 4월 2일 숨졌다.

사건을 맡았던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숨진 피고인의 무죄 입증을 위해 ‘궐석 재심 재판’으로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차량 추락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검증과 수사, 사고 감정, 차량 인양 등에 관련된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21일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속행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포함한 3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

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차량 발진 지점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은 없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차량 진행 노선 파악과 사고 당시 조향 장치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섰다.

검찰 측은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하다 고의로 저수지로 향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출운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사고 당시인 2003년의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과거 현장검증을 통해 의도적인 조향 없이도 사고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라고 하면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전혀 흔적이 없다”며 “검찰이 도로와 사고 지점을 짜맞추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고 당사자에게 묻고 싶으나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사자만큼 사건을 알 수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고인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해물 07:39 일풀 08:38  
해림 17:48 일점 19:11



광주		-6~2
목포		-4~0
여수		-3~4
순천		-5~3
구례		-6~3
광주		-4~1
제주		-1~1
부산		-2~6

#### 고속도로 역주행…2명 사고

만년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명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

19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조사 중.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58분께 순천~원주 고속도로 순천 방향 10.7km 지점 편도 1차로에서 SUV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아.

A씨는 약 4km 구간을 거꾸로 주행했고, 정상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이 사고로 SUV 차량 4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운전 미숙·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임영진 기자 looks@

#### 금은방 절도 미수 10대 4명 체포

‘오토바이 구매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낸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19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 경찰은 이들 17일 오전 3시40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벽돌로 유리창을 파손 후 방범장을 내리고 금은방에 침입했지만 경보음이 울리자 달아났다.

A군은 금은방 침입 당시 진열장에 귀금속이 없는 텃에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3명은 금은방 밖에서 오가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며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18일 오후 2시 경찰 일원에서 모두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진 기자